

연구팀은 이처럼 전립선암 사망률이 급증한 요인으로 비만, 지방섭취, 운동부족 등을 꼽았다. 또 대장암과 췌장암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서구형 식사, 과체중, 운동부족, 흡연 등이 꼽혔다. 췌장암의 경우 1994년까지 증가하다 흡연율이 낮아지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여성은 췌장암(4.0배), 비호치킨림프종(3.4배), 뇌암(3.1배) 등의 순으로 암 사망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암 사망 감소율은 남성이 위암(-73.2%), 간암(-30.0%), 식도암(-26.8%) 등의 순으로, 여성은 위암(-73.3%), 간암(-16.8%), 식도암(-63.0%), 자궁암(-56.8%) 등의 순으로 각각 분석됐다.

이 같은 암 사망 감소율에는 암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을 증가와 생활습관 개선 등의 예방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연구팀은 지목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상만 보면 남녀 비호치킨림프종만 198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 췌장암과 남성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증가폭은 크게 낮아진 상태로 관찰됐다.

문학

■ 개요

2015년 문학계는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이 다른 크고 작은 이슈를 상쇄할 만큼의 충격을 줬다.

한국 대표 작가로 해외에도 널리 이름을 알린 신경숙이 입은 오명은 그를 둘러싼 대형 출판사의 체면까지 구겼다. 출판사 편집진들이 씁쓸한 여운을 남긴 채 퇴진했고, '재미있는 문학'을 원하는 젊은이 주도로 세대교체의 서막이 올랐다.

국내 소설은 부진을 이어간 가운데 어두운 정치·사회 현실, 돌파구 없는 젊은이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주목받았다.

미국 소설가 하퍼 리는 '앵무새 죽이기' 이후 55년 만에 신작을 내놨고, 노벨문학상은 기자 출신 작가에게 돌아갔다.

■ 신경숙 표절 논란…'철옹성' 무너뜨린 한 줄 기고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은 한국문학의 지형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16일, 소설가 이응준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게재한 한 편의 글은 문학계의 끓어 있던 부조리를 터뜨리는 역할을 했다.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했던 신경숙은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부 사과했다.

문제의 작품 '전설'이 수록된 단편집을 출간한 출판사 창비는 물론, 문학동네와 문학과지성사 등 이른바 '3대 출판사'는 감시자 역할에 소홀한 문학 비평으로 스타 작가의 모자람까지 맹목적으로 감싸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창비와 문학동네는 사과와 토론회 제안, 문예지 개편 계획 등에 있어 다소 거만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의 한 부분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흡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 씨.

실망을 안겼다.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 실천문학 등 주도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으나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한번도 토론자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대형 출판사가 그동안 미뤄 온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백낙청 창비 편집인은 11월 창비 창립 50주년에 맞춰 퇴진했다. 문학동네는 강태형 대표이사와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 7명이 물러났다.

신경숙의 남편이자 문학평론가인 남진우는 11월 말 출간된 '현대시학' 머리말에서 "신경숙을 비롯해 여러 작가의 표절 혐의에 대해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해당 작가를 위해서나 전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소설가 박민규가 초기작인 '삼미 슈퍼스타츠의 마지막 팬클럽'에서, 그림책 작가 최숙희가 '열두 띠 동물 까꿍놀이'에서 각각 인터넷 게시판 글과 일본 그림책을 표절했다고 인정하면서 문학계에서는 표절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 '작가 중심' 문예지, '독자'에게 자리 내주다

젊은 문인 중심 문예지, 독자를 지향하는 문예지가 2015년 잇따라 창간했다.

문학동네의 임프린트인 엘릭시르는 장르소설 전문 격월지 '미스터리아'를 6월 창간했다. 창간호에서는 한국 미스터리 역사의 현황을 정리했고, 2호에서는 '가정 스릴러'를, 3호에선 '스파이'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7월에는 은행나무가 격월간 잡지 '악스트'(Ax)를 창간했다. '비평'이 아닌 '서평'을 추구하는 악스트는 국내외 소설 서평, 소설가 인터뷰 등 오로지 소설 그 자체에 집중했다.

독립잡지 '더 멀리'는 젊은 시인들이 주축이 됐다. "문학·비문학, 등단·비등단,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 잡지의 특징은 시·소설이 아닌 '잡문'이 많고, 작가가 아닌 일반 독자의 투고가 있다는 점이다.

신경숙 표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대형 문학 출판사도 2015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삼았다. 계간 '문학동네'가 새로 구성한 2기 편집위원진에는 영화평론가, 문화평론가, 음악평론가가 포함됐다.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문화 전반으로 의제를 확장하고, 삶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문학동네' 측의 설명이었다.

40주년을 맞는 문학과지성사가 발표한 '5세대 편집동인' 6명은 모두 30대로 구성됐고, 문화평론가와 서평가,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자가 포함됐다.

뒤이어 민음사에서 발행하는 40년 역사의 문예지 '세계의 문학'이 2015년 겨울호를 끝으로 발간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학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의 문학'은 두꺼운 문예지를 과감히 버리고, 이를 대체할 다른 형태의 종이 잡지나 웹진 등을 고민하고 있다. 민음사가 공언한 방향은 "독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독자 지향 문예지의 출현은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 그저 재미있는 문학, 공감 가는 글을 보고픈 갈증에서 나왔다. 기존 문예지가 자사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위주로 글을 싣고 비평하면서 정작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담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대변했다.

■ 한국문학 '가뭄'... '헬조선' 다룬 작품 화제

한국문학은 이렇다 할 히트작 없이 부진을 이어갔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15년 베스트셀러 목록 20위권 안에 한국 시집이나 소설은 단 한 권도 없었다.

"한국 소설에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가운데 기자 출신 신인 작가 장강명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장씨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걸쳐 수림문학상, 한겨레문학상, 문학동네작가상, 제주4·3평화문학상 등 대형 문학상을 휩쓸며 존재를 알렸다. 그가 2015년 펴낸 장편 '한국이 싫어서',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땃글부대' 등은 한국사회 부조리와 돌파구 없는 20대의 무력감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구병모의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백가흠의 '사십사', 조해진의 '여름을 지나가다' 등이 20~40대 한국 남녀의 고민을 날것 그대로 펼쳐보였다.

중견 작가인 박범신은 '당신'에서 치매 부부를, 황석영은 '해질 무렵'에서 지난 세대의 업보를 대신 짚어준 젊은 세대에 대한 연민을 그리며 시대의 고민에 동참했다. 4월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작가 15명이 참여한 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가 나왔다.

'헬조선'이라 불릴 만큼 답답한 한국 사회에 관한 염증은 동시에서도 나타났다. 5월 출간된 이순영(10) 양의 시집 '솔로 강아지' 수록작 '학원가기 싫은 날'에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 이렇게 // 엄마를 씹어 먹어" 등의 격한 표현이 담긴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시적 표현은 엄연히 시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윤리를 해치는 '잔혹 동시'라는 의견이 온라인에서 분분하게 오갔다. 결국 출판사는 책을 모두 회수하고 다시 편집해 출간했다.

■ 하퍼 리 55년 만에 신작...노벨문학상은 기자 출신 작가에게

전 세계에 4천만 부가 팔린 '앵무새 죽이기'(1960)의 작가 하퍼 리(89)가 55년 만에 후속 내용을 담은 '파수꾼'을 내놨다.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스카웃은 '파수꾼'에서 20대가 됐다.

책 내용은 7월 14일 전 세계에 동시 출간되기 전까지는 각국의 번역가 1명과 편집자 1명씩만 알고 있을 정도로 극비에 부쳐졌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흑인 청년을 변호한 인물로 그려진 애티커스 핀치가 '파수꾼'에서는 인종 차별주의자로 묘사돼 논란이 됐지만, 발간 첫 주에 북미에서만 100만 부가 팔리면서 하퍼 리의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에게 돌아갔다. 여러 신문사와 잡지 기자로 일한 알렉시예비치는 그 경력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목소리 소설'을 썼다.

사실상 전통적 문학보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작품을 쓴 알렉시예비치는 스웨덴 한림원에서 "저널리즘의 형식을 초월해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미술

■ 개요

2015년은 어떤 해보다도 미술계에 큰일이 많았다.

한국 미술계를 대표했던 천경자 화백이 별세했고, '세계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임흥순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국립으로는 국내 유일할 현대미술관은 46년 만에 외국인을 관장으로 받아들일게 됐다.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 천경자 화백 별세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 화백이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화백의 딸이 8월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10월 22일 알려졌다. 사망설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이 확인되자 미술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 10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추도식에서 한 추모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